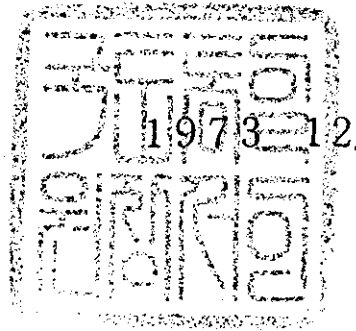


닉슨독트린의 배경과 새로운
東南亞政策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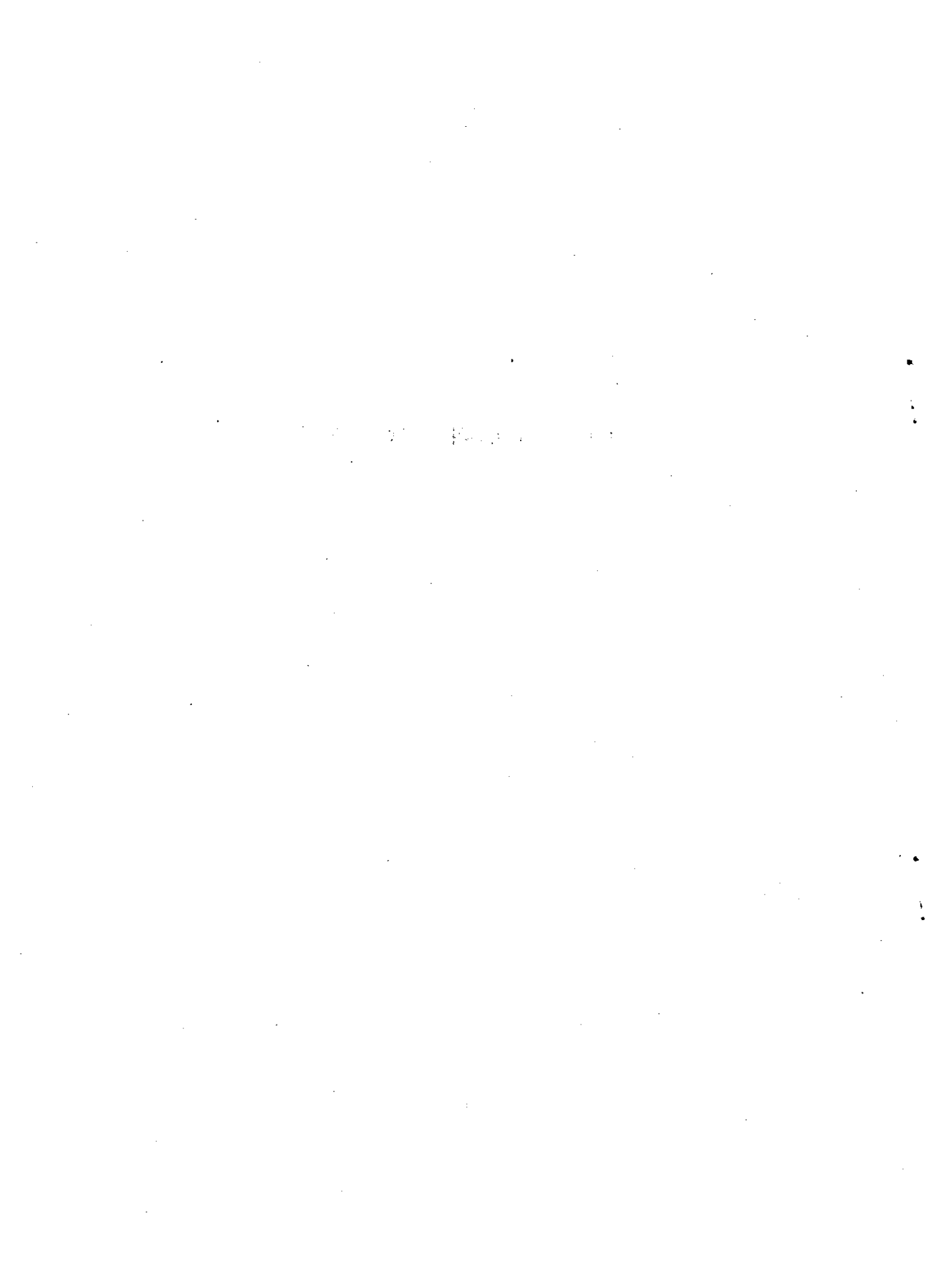
研究責任者： 김 경 원

目 次

第 1 部 美国의 世界戰略	3
1. 70 年代의 美国의 問題点	5
가. 經濟的 問題点	6
나. 社会的 問題点	9
다. 政治的 問題点	10
라. 軍事的 問題点	11
2. 「키신저」의 外交類型	13
3. 美国의 새로운 外交政策 目標 (Foreign Policy Goals)	22
가. 世界의 安定과 平和의 維持	22
나. Bloc 間의 平衡 (Equilibrium) 企圖	24
다. 「태탕트」의 安定	25
라. 美国의 國家利益追求	29
4. 具體的 目標	31
가. 同盟國間의 關係에 關한 原則	31
나. 「닉슨·닥트린」 (Nixon Doctrine)	32
다. NATO 구라파政策	34
라. 軍事政策	37
第 2 部 東「아시아」 및 太平洋政策	41
1. 美国의 政策目標	43
2. 軍事政策	45

3. 中共政策.....	46
4. 日本政策.....	49
5. 問題点.....	52
第3部 美国의 对韓半島政策.....	55
1. 韓國에서 의 美国의 利害關係.....	57
2. 外交政策.....	58
3. 經濟政策.....	59
4. 駐韓美軍 減縮問題.....	60
5. 蘇聯 및 中共의 北韓挑發助長 可能性.....	60
가. 蘇聯의 北韓挑發助長 可能性.....	60
나. 中共의 北韓挑發助長 可能性.....	61
6. 北韓의 单独開戰 可能性.....	62
7. 韓國政府의 戰爭予防措置 (对備策).....	64
가. 韓國側의 措置.....	65
나. 美国側의 措置.....	65
結 論.....	67

第 1 部 美國의 世界戰略



第 1 部 美國의 世界戰略

1. 70年代의 美國의 問題點

國內政治와 國際政治間的 相互 連鎖的 關係는 새로운 現象이 아니다. 그러나 科學의 發達, 特히 交通手段과 通信科學系統의 革命的 發達은 世界를 漸次的으로 縮小시켜 國際政治가 特定國家의 國內政治에 미치는 影響이 決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게 되었다. 또한 世界第二次大戰의 終息과 더불어 國際政治를 支配하여온 兩極體制는 同一 BLOC 內的 結束을 前提로 하였고 따라서 國家間 特히 BLOC 의 指導國인 美國 및 蘇聯과 그들의 同盟國 特히 被保護國 (Protégé States) 과의 關係는 外交史上 가장 密接한 關係를 維持함으로써 強大國의 國內政治가 그들 國家의 外交政策決定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強大國들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弱小國家들은 自然 強大國들의 國內的 要因을 反映한 對外政策에 커다란 影響과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國際政治와 國內政治의 要國들 間的 關係를 深化시킨 세번째의 原因으로서는 過去 植民地大國과 新生獨立國家와의 關係를 들 수 있다. 世界第二次大戰時까지 植民地國家로서 戰後 獨立을 한 國家들은 비록 政治的으로는 獨立을 하였으나 보다 實質的, 經濟的, 文化的 紐帶는 獨立後에도 過去 植民地 Power 와의 깊은 關係를 維持하고 있음으로써 國家的 或은 外部的 要因이 國內政治에 많은 影響을 주는 現象을 招來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國內外的 要因

의 相互作用을 研究하는 過程에서 또하나의 特記할 現象은 強大 國일수록 그들의 外交政策이 後進國의 國內政治 및 外交政策 樹立 過程에서 直接的으로 큰 影響을 미치며 強大國일수록 그들의 國內的 要因이 그들의 外交政策을 樹立하는 過程에 있어서 後進同盟國으로부터 받는 影響보다 훨씬 더 큰 影響을 미친다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美國과 蘇聯과 같은 強大國의 外交政策은 그들의 國內的 要因에 依해서 많은 影響 乃至 規制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本研究課題의 對象인 美國의 外交政策의 樹立過程을 分析하여 보면 美國의 現在 國內政治上의 여러가지 要因 및 問題點은 美國의 世界戰略 또는 世界戰略을 樹立하기 爲한 諸般政策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새로운 世界戰略을 研究하기 爲하여서는 먼저 1970年代 美國의 國內問題를 充分히 理解하여야함은 勿論이다. 美國은 美國歷史上 未曾有의 큰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分野別로 考察해 본다면 美國의 所謂 世界戰略의 새로운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經濟的 問題點

첫째 美國은 1930年代의 大恐慌以來 最惡의 經濟狀態에 處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 Inflation이 美國의 最大 經濟問題로 登場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인프레」現象이 世界各國의 共通된 問題이며 他國에 比하여 美國의 「인프레」上昇率이 낮다고는 하지만 他國에

비례 낮은 「인플레이션」上昇率이 美國의 經濟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금의 「인플레이션」成長率이 漸次 增加추세에 있기 때문에 所謂 NIXON의 4段階經濟對策의 마지막 段階인 4段階措置(P-hase IV)가 失敗할 境遇 美國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惡化할 機微를 보이고 있다. 特히 美國에 있어서 豊요의 象徴이었던 農産物의 品貴 및 價格急騰추세는 美國人의 生活에 實質的인 면뿐만 아니라 心理的으로 크게 圧迫을 가하고 있다.

세계로는 增加一路에 있는 失業者數는 美國行政府를 괴롭히고 있는 또하나의 큰 經濟的「잇슈」이다.

네제 國際貿易에서의 赤字와 輸入商品에 依한 國內産業의 打撃은 美國의 貿易政策의 再評價 및 調整을 招來하고 있다.

1972年度 美國의 貿易赤字는 約80億弗에 達하고 越南戰에서의 戰費의 過多支出은 「달러」貨의 繼續的인 評價切下를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美國의 「달러」貨는 1973年 1月1日부터 1973年 6月8日 約 5個月間에 日本의 円貨에 對比하여 16.7%, 佛蘭西의 「프랑」(Franc)에 比하여 18.3%, 獨逸의 「마르크」(Mark)에 比하여 22.8%, 「스위스」의 「프랑크」(France)에 比하여 24.7%가 切下되었다.

勿論 이러한 「달러」貨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弱勢는 恒久的 現象은 아닐 것이며 美國의 外的, 經濟的 補強策의 結果로 回復이 可能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爲하여서는 相當한 時間과 政治的 外交的 代價가 必要로 할 것이다. 一部에서는 「달러」貨의 評價切下가

美國의 經濟에 도움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經濟의 좁은 한 部分에만 該當되는 이야기일 것이고 美國의 全般的 經濟에는 甚한 打擊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美國의 經濟가 完全히 自給自足を 한다면 몰라도 海外로부터의 輸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現實情에서는 于先 海外로부터의 原料 및 商品의 價格 상승은 美國의 「인프레」의 上昇을 促進시킬뿐만 아니라 美國人の 所得의 購買力弱화 現象을 가져와 國民의 經濟生活을 直接的으로 威脅하게 되었다.

또한 繼續되는 Inflation과 賃金の 引上, 海外原料의 價格騰貴는 外國商品에 依하여 이미 打擊을 받고 있는 國內産業에 二重的 打擊을 最少限 當分間만이라도 받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다섯째 資源의 海外依存度の 增加現象은 美國의 經濟를 長期的으로 괴롭혀온 要素로서 強力한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石油波動으로 世界經濟危機를 造成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美國은 1967年의 中東戰爭時 「아랍」 側의 斷油措置에도 不拘하고 美國과 南美洲에서 生産되는 石油로서 自給自足하였을뿐만 아니라 「유럽」과 日本의 石油需要量을 充足시킬 余力이 있었다. 그러나 美國自體의 需要量의 急增으로 現在에는 美國 自體의 需要量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約 12%를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美國의 心臟部라 할 수 있는 東部地域의 油類供給은 中東에서 輸入되는 原油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임으로 美國의 石油問題는 이미 深刻한 境地에 이르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石油危機는 肯定的인 現象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美國經濟에 더 큰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80까지는 現在의 12%가 40%以上으로 增加될 것으로 判斷되고 또한 油類以外的 다른 資源의 依存度가 漸次 增加一路에 있기 때문에 美國이 輸出이 앞으로 增加된다 하여도 輸出에서 얻는 輸入은 거의 全部가 輸入原料, 商品의 附屬品, 海外 勞動力 등으로 支出될 것으로 보며 最善의 狀態下에서도 美國의 큰 貿易黒字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나. 社会的 問題點

經濟的 問題點 以外에도 美國은 많은 社会的 問題들로 苦惱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社会的 問題들이 根本的 米봉책을 爲하여서도 巨額의 予算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美國의 予算上 큰 部分을 要求하고 있는 実情이다.

社会的 問題로서는 亦是 美國内の 黑白의 人種問題를 첫째로 꼽지 아니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尖銳化하고 있는 人種意識과 社会的 影響力이 漸次 增加하고 있는 黑人들은 그들의 生活改善과 美國의 富의 보다 큰 惠沢를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두번째의 큰 社会問題로서는 大都市의 財政的, 行政的 崩壞現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스」, 「휴스톤」 등을 비롯한 美國의 大都市들은 한결같이 苦戰을 免치 못하고 있다. 大都市의 異狀的 肥大, 都市物價의 暴騰, 大都市内の 貧民層의 增加, 都市民의 道德 및 秩序에 對한 尊敬心の 衰退, 交通手段의 複雜化와 費用의 騰貴 등의 여러가지 原因으로 因하여 過去 独立的인 財政을 維持할 수 있었던 大都市가 財政적으로 破産狀態에 突入하게

되고 따라서 都市行政 自体가 崩壞될 危機에 直面하고 있어 聯邦政府의 豫算支援이 切實히 必要한 狀態에 있어 聯邦政府로서도 더 以上 座視할 수 없는 地境에 이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美國 全域에 걸친 犯罪의 增加는 또하나의 골치거리로 登場하고 있다. 社會犯罪의 幾何學的 增加는 美國의 法制度의 運營뿐만 아니라 社會全體에 對한 深刻한 挑戰으로 나타나고 있다. 特히 靑少年層의 마약事犯의 急增은 美國의 將來에 큰 影響을 줄 수 있는 社會問題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諸般 社會犯罪의 急增은 政府豫算을 消耗하는 項目으로 되어 있어 結果적으로 美國財政은 여러 側面으로부터의 經濟的 壓力을 받고 있음은 將來 美國의 外交政策遂行뿐만 아니라 政策樹立 自体에 重大한 影響을 주고 있어 從來의 美國의 世界戰略의 繼續的 維持를 不可能케 하는 重要한 要因中의 하나로 登場하고 있다.

다. 政治的 問題點

國內政治에 있어 美國의 政治的 雰囲気은 保守主義者들의 過去 「헤게모니」에 對한 自由主義者들의 發言權強化로 크게 姿貌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越南戰을 反對하는 所謂 反戰主義者 등을 中心으로한 政治人, 言論人, 知識人, 學生들의 自由主義的 (Liberal) 批判勢力의 強化는 美國政府의 政策樹立 및 遂行過程에서 強力한 制限을 加하고 있다.

이러한 新潮流의 便乘하여 美國의 國會는 國防豫算과 海外援助豫

算의 削減을 主張하고 國內問題 解決 및 福祉社業으로 削減된 豫算을 轉用하려는 것이 支配的인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過去國內의 本거지로 되어 있는 上院의 이러한 움직임에 對하여 「맥코믹」議長, 「칼·알버트」民主黨 院內總務, 「모간」外交 委員長等이 中心이 된 下院의 保守的 人士들이 制動을 걸어 美國行政府로 하여금 越南戰을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豫算上의 支援을 하였으나 「맥코믹」議長の 辭退, 保守的 下院의 自由主義化 傾向에 따라 오늘날에는 美 國會의 兩院이 모두 豫算節減, 特히 國防費와 海外援助費用의 削減傾向으로 나아가고 있어 美行政府는 從來의 國防, 外交政策에 對하여 重大한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는 局面에 處하여 있다.

最近 大統領의 戰爭遂行 權限을 制限하는 法案에 對한 大統領의 拒否權行使에 對하여 兩院의 3分之2 以上の 支持를 받아 同 法案에 對한 再確定 (Overriding)을 한 것은 美國會의 現在 「무드」가 어떠한 것인가를 適切히 表現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軍事的 問題點

美國은 世界第二次大戰의 終戰時부터 1960년까지 軍事的 絶對優位 (Military Preponderance)의 地位를 누려왔다. 特히 1950年代 初期까지 美國은 核武器의 絶對的 優勢를 占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軍事的 優勢를 美國이 外交的으로 利用을 하지 못한 것은 美國으로서는 큰 失手였었다. 當時 美國은 核武器의

엄청난 破壞力에 依해 그들 自身이 麻痺되어 核武器의 政治的 外交的 利用價值에 對하여는 全혀 考慮치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美軍의 이러한 軍事的 優位는 더 以上の 事實 이 아닐뿐만 아니라 部分的으로는 蘇聯과 比較하여 오히려 劣勢에 処해 있는 部分도 있다. 特히 ICBM分野에서는 蘇聯이 1,500基를 保有하고 있는데 反하여 美國은 1,054基 밖에 保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過去 美國이 軍事的 優位를 占하고 있던 時代의 外交 政策은 더 以上 存在할 수 없게된 것은 오히려 自然스러운 論理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國際政治의 變化

1970年代의 國際政治 版圖가 1945~1950年間の 國際政治的 現實과 다르다는 것은 不問可知的 事實이다.

첫째로 特記하여야 할 事實은 共產勢力의 膨脹 및 安定이다. 2次大戰末期까지만 해도 社會主義國家는 蘇聯 一國에만 極限되었던 것이 美國의 外交的 失敗와 部分的으로는 東歐圈 特히 「발틱」國家들에 對한 「러시아」의 傳統的 影響圈을 認定하려는 美國政策樹立 家들의 傾向으로 東歐에서 共產國家들이 出現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中國共產黨의 大陸席圈을 효시로 하여 「아시아」共產主義의 膨脹으로 오늘날에는 共產勢力이 크게 伸長되었을 뿐만 아니라 國際적으로 共產政權의 安定化로 앞으로 「이데올로기」의 消滅 또는 世界大戰에 依하지 아니하고서는 地球上에서 共產主義國家가 消滅되

기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 따라서 美國은, 이러한 共產國家들을 더 以上 包圍壓縮(Containment)을 企圖한다든가 또는 無視한다든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美國의 友邦國家 및 新生獨立國家들과의 關係도 크게 變質되었음을 볼 수 있다. 戰後 美國의 經濟的, 軍事的 援助에 依存하여서만 存続이 可能하였던 日本, 歐羅巴 및 南美諸國에 對한 美國의 影響力은 오늘에 와서는 크게 減退되었으며 美國으로부터의 政治的 或은 經濟的 獨立을 主張하게끔 이르렀고 이를 美國이 拒否할 수 없게 된 것이 또한 嚴然한 現實로 登場했다. 따라서 美國은 同盟國家들과의 關係를 再調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을 切實히 認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一聯의 國內的, 國際的 要因 即 美國의 經濟力弱화, 政治的, 社會的 問題點 및 軍事的, 外交的 現實은 美國의 새로운 現實을 基礎로한 새로운 世界戰略의 採択을 強力히 要求하게끔 하였다.

2. 「키신저」의 外交類型

오늘날 美國의 外交라고 하면 곧 「헨리·키신저」를 聯想하리만큼 「키신저」는 美國의 外交界를 席卷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點은 「키신저」는 어디까지나 「닉슨」大統領을 補佐하는 人物이란 點이다. 特히 「닉슨」

大統領이라는 人物의 性格 乃至 「스타일」로 볼 때 「키신저」의 外交政策이란 亦是 「닉슨」의 外交政策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興味로운 事實은 「닉슨」大統領이 「키신저」國務長官을 그의 白堊館安保担当 補佐官으로 拔擢할 當時 「닉슨」大統領은 「키신저」博士와 過去 아무런 交際가 없었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닉슨」大統領은 어떤 政治的 「네포티즘」때문이 아니라 「키신저」博士의 哲學과 外交路線과 그의 能力을 調査하여 「닉슨」大統領 自身の 安保哲學 및 外交路線과 符合된다고 判斷하고 그의 能力을 높이 사서 「키신저」博士를 그의 補佐官으로 任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美國의 外交政策은 「닉슨」의 世界戰略構想과 世界安保 및 平和에 對한 構想을 「키신저」長官의 洗練된 理論과 그의 特有한 外交的 手腕과 情熟의 符合된 表現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러나 「키신저」長官이 美國의 外交政策의 一線担当者로서 크게 脚光을 받고 있음으로 美國의 새로운 世界戰略을 論함에 있어 「키신저」博士의 個人的 哲學과 그의 빈번한 發表를 통하여 나타나는 「키신저」의 外交類型을 여기서 한번 分析해 보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헨리·에이·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獨逸胎生(1923 5.27 日生) 猶太人으로서 그가 15 歲때 女高校長을 지낸 父親을 따라서 1938 年 美國으로 移民하였다. 2 次大戰時에는 下士官으로서 陸軍情報學校에서 教官을 하다가 戰後 「하바드」大學에 入學, 政治

학을 專攻하였다. 그의 大學時節에는 主로 歐羅巴의 政治史와 政治思想에 力點을 두고 歐洲政治史의 權威였던 「윌리엄·엘리엇」에게 師事한 것으로 傳하여 지고 있었으며 特히 「헤겔」의 弁證法, 「스펜 글러」(Spangler)의 幼少長老의 歷史觀과 「토인비」(Toynbee)의 精神이 歷史를 支配한다는 歷史發展論에 많은 興味를 갖고 現實外交에서는 「멧테르니히」와 그의 Counter Part였던 英國의 「카느레이」와 그 後 「비스마르크」의 外交類型이었던 勢力均衡制度 (Balance of Power System)에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키신저」의 博士学位論文 亦是 「멧테르니히」와 「카느레이」時代의 勢力均衡制度 運營에 關한 論文이었다는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멧테르니히」와 「비스마르크」는 獨裁政治理論에서는 政治的 現實主義者 (Political Realist)의 代表的 人物로서 國際政治는, 힘의 合理的 評價에 基礎한 힘의 合理的 管理라는 原則下에서 몇個의 國家 (最小 5個國以上)가 相互牽制 및 힘의 過多使用의 自制라는 制度運營의 法則에 따라 國際秩序를 維持한다는 勢力均衡制度의 天才的 政治家였다. 「키신저」博士는 그의 世界觀에서 歷史決定論者的 發言을 종종 하고 있음을 볼때 18世紀末서부터 第1次世界大戰閉戰以前까지의 歐羅巴의 狀況과 類似한 狀況을 오늘날의 世界政治에서 發見하고 있는 것 같다. 即 過去 「오스트리아」, 英國, 「프랑스」, 獨逸, 「러시아」가 割拠한 當時의 歐羅巴가 多極混合體制였다면 오늘날 美, 蘇, 歐羅巴, 中共, 日本을 「멤버」로 하는 새로운 多極化 制度를 意中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힘의 合理的 管理面에서도 過去 불란서나 獨逸, 英國이 힘의 過用을 自制한 經驗을 오늘날 美·蘇의 힘의 自發的 抑制을 提議하는데서 다시 復活시키려 하고 있다. 오늘날 政治的으로 是 多極化時代라고는 하나 軍事的 힘의 次元에서는 아직도 世界는 兩極體制를 維持하고 있다는 點을 強調, 美·蘇의 이러한 軍事的인 힘을 自制하여 多極化制度의 運營을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신저」의 外交類型은 힘의 多極化뿐만 아니라 國際政治의 主役인 強大國間의 힘의 均衡을 指向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特히 中·蘇紛爭에서 劣勢의 位置에 있는 中共을 支援함으로써 中·蘇間의 均衡을 이루어 中·蘇紛爭이 核武器의 使用을 包含한 突戰에로의 突入을 豫防하고 있는 것等은 明白히 勢力均衡制度의 原則을 適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對한 「키신저」의 態度에서 亦是 政治的 現實主義的 傾向을 찾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實質的 利害 또는 懸案問題解決에 더욱 置重하고 理想的 目標設定보다는 現實的 政策設計에 主眼點을 두고 그의 外交를 展開하고 있다. 그의 越南戰終結을 爲한 協商過程과 北京訪問에서의 外交活動은 從來 「이데올로기」의 制限을 받았던 外交類型과는 크게 다른 것을 指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신저」의 外交政策은 根本的으로 19世紀의 勢力均衡主義者들과 같이 現狀維持 (Status quo)를 指向하고 있는 保守的 外交政策이라는 點이다. 이러한 保守主義的 傾向은 特히 外交 및 一般政治 全般에 걸쳐 反革命的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 通例이다. 불란서 大革命을

實質的 理由로나 思想的 理由로 反對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Burkian, Caryle 或은 「멧테르니히」였거나 莫論하고 한결 같이
革命的 方法의 終章을 指摘하고 있다. 卽 革命的 末期現象이란
Thermidorian effect 를 考慮치 않더라도 健全치 못하다는 것이
다. 「키신저」 亦是 現實的 保守主義者로서 일단은 革命과 革命的
Approach 를 排擊하고 있다.

이러한 「키신저」의 外交政策은 一層 그體系와 秩序가 定立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몇가지 「키신저」의 外交
政策의 基本的 要素中 相互 矛盾되며 多分히 危險한 要素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키신저」는 現實主義的 「아프로치」로서 國際政治에 臨하
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演說을 通하여 나타나고 있는
恒久的 世界平和에 對한 樂觀的인 見解와 蘇聯 및 中共과의 새로
운 關係摸索의 基本은 亦是 多分히 理想論的인 性格을 띠고 있음
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恒久的 世界平和論은 多分히 Kantian
Philosophy 를 內包하고 있다. 特히 앞으로의 새로운 世界秩序
또 이를 土台로 한 平和스러운 國際社會가 可能하기 爲하여서도,
現時點에서 본다면 共產圈을 包含한 모든 強大國이 美國과 同一한
世界秩序觀을 갖고 이에 協調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것이 可能할 지는 相當한 論難의 對象이 될 것이며
오늘날의 國際情勢에 對한 冷情한 分析을 土台로 評價한다면 「키
신저」의 이러한 概念은 最小限 이 時點에서는 理想論的이라는

價値를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키신저」의 現狀固定(Status quo)을 指向하는 保守的 外交路線과 이를 追求하는 外交的 方法論間的 矛盾點이 그것이다. 「키신저」는 그가 美國의 外交政策의 立案者이며 遂行者의 位置를 確保한 以來(언제부터라고 分明히 밝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多分히 Excitement 를 追求하는 革命的 外交政策을 進行시켜 왔음은 틀림없다.

여기서 革命的이란 用語의 使用에 對한 誤解를 事전에 防止하기 爲하여 필자의 定義를 밝혀두고자 한다. 革命的의 概念에 關하여서는 여러 가지 Semantic 할 問題點이 있겠으나 一般적으로 根本的인 質的 變化를 意味하고 있다. 勿論 自然科學에서는 革命이란 Technology 의 根本的 變化를 意味하고 社會的 側面에서는 階級 乃至 基本價値의 根本的 變化를 意味하고 있다. 또한 Hannah Arendt 와 같은 사람은 政治的 革命이란 반드시 暴力的 有血性이 隨伴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 革命的 " 이라는 用語에서 意味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國際政治에서 外交政策部分에 極限시키고 둘째로는 外交政策의 性格을 分析함에 있어서 現狀打破의 傾向을 指稱하고자 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키신저」의 外交政策 特히 그 方法論은 確實히 現狀打破의 傾向을 띤 衝擊的 外交方法論을 採択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現狀固定이라는 保守的 外交政策을 遂行하기 爲하여 多分히 革命的 外交手

段을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勿論 이것이 全히 不可思議한 現象은 아니지만 여기서 注目視되는 點은 政策과 政策遂行을 爲한 方法論의 性格的 差異는 그의 外交政策이 追求하고 있는 目標인 現狀維持 및 安定에 危險을 줄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세 제로 「키신저」가 追求하고 있는 現狀維持 (Status quo) 의 性格問題이다. 다시 말해서 「키신저」의 Status quo가 1967年 Nixon - Kissinger Team이 登場할 時의 Status quo 인가 아니면 1970年 또는 1975年의 Status quo 인가의 問題이다. 筆者가 強調하고 실은 點은 「키신저」의 "現狀"이라는 것은 1967年度의 世界의 Status quo 라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키신저」가 그리고 있는 國際制度를 成功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그러한 理想的 "Status quo" 를 意味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卽 美, 蘇, 中, 日, 歐羅巴가 國際政治의 一翼을 担当하는 明實 共히 責任과 權限을 行使하는 國際政治의 行爲者 (Actors)로서 活動하는 그러한 狀態를 誘導하고 그러한 "Status quo"를 繼續 維持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勿論 "現狀維持"가 一切의 모든 變化를 排擊한다는 뜻은 아니다. 變動의 幅이 좁은 「마지날」 (Marginal)한 變化는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나 「키신저」가 目的으로 삼고 있는 "現狀維持"란 變化의 크기가 國際社會 特別 國際構造의 質的 變化를 이르켜 結局에는 國際構造 自体의 變革을 招來하는 그러한 變化라는 點에서 「키신저」의 保守主義的 現狀

維持의 外交政策에서의 " Status quo "란 特別한 意味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째로 「키신저」의 外交路線의 脫「이데올로기」의 性格을 들 수가 있다. 政治的 現實主義者로서 「키신저」는 「이데올로기」에 對하여 冷淡하다는 點에 對해서는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役割 및 實踐 政治에의 影響은 18世紀 및 19世紀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의 性格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는 點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다는 것이다. 過去 18~19世紀 歐羅巴의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單的으로 表現해서 歐羅巴 自由主義思想을 中心으로 한 保守→革新→反動的 保守復古主義의 循環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世界觀의 極的 對立이라든가 社會의 基本秩序 및 基本價値의 極限的 對立의 性格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共產, 自由의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보다 深刻한 것임이 틀림없다. 長期的으로 볼 때 人類全體의 生活環境이 改善되고 國家間 世界觀의 差異가 縮小될 境遇 兩極端의 「이데올로기」가 中間的 妥協點을 찾고 「이데올로기」의 機能이 停止될 境遇를 우리는 想定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바람직한 狀態의 現實化를 爲하여 꾸준히 努力하여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希望은 短期的으로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이 이러한 狀態를 願하는가가 確實치 않기 때문에 美國이 一方으로 樂觀論을 堅持한다는 것은 共產主義者들의 속임수에 또 한 번 우롱當할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生覺한다면 이것은 單純한 杞憂

일 것인가?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키신저」의 「이데올로기」에 對한 輕視 傾向은 多分히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問題點은 「키신저」가 「이데올로기」를 輕視하면서도 現實外交에서 「이데올로기」의 影響을 全然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과 「키신저」의 哲學과의 差異에서 오는 葛藤은 現實外交面에서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가도 問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筆者가 「키신저」의 外交類型을 非合理的 投機行脚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키신저」는 最小限 現時點에서 判斷할 때 世界平和를 爲한 進一步的인 業績을 이미 쌓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筆者가 指摘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두가지 理由에 關해서이다.

첫째 「키신저」의 外交政策이 世界的으로 旋風的인 人氣(?) 를 끌고 있어 그의 政策또는 問題解決의 方法에 對하여 우리가 信賴하고 分析・評價함에 있어서 우리들 自身이 誤謬를 犯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키신저」 亦是 人間이기 때문에 失手를 犯할 수 있고 實際로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亦是 前記한 바와 같은 「키신저」의 安保哲學 乃至 外交政策上的 矛盾 乃至 弱點때문에 그의 外交的 成功 與否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떤 面에서는 悲劇的 要素도 적지않이 內包하고 있어 韓國과 같은 美國의 外交的 保護國(Protege State)은 美國의 世界戰略의 「오리엔테이션」 自体에 問題點이 있을 境遇의 波及的

효과에 對備한 政策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美国의 새로운 外交政策目標 (Foreign Policy goals)

美国의 国内外的 要因에 依하여 새로운 世界戰略을 採択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境遇 새로 樹立된 (修正된) 世界戰略에 따라 새로운 外交政策目標가 設定되었을 것이다.

가. 世界의 安定과 平和의 維持

美国의 새로운 外交政策目標라면은 平和보다 經濟的인 政策을 追求하는 目的에서 世界의 安定과 平和의 維持라 할 것이다. 世界 第2次大戰後 美国은 自意半 他意半에 依하여 世界 最強國으로서 國際政治의 指導國으로 登場한 以來 世界의 警察軍의 役割을 担当하여 왔다. 이러한 美国의 負擔은 終局에는 美国의 經濟的 弱化和 国内政治의 不安이라는 結果를 招來하며 美国의 朝野政治人和 外交政策 担当者들은 可能한 限 美国의 費用을 最小로 줄이며 同時에 美国의 安全을 保障할 수 있는 政策을 摸索한바 世界政治의 一般的 安定과 平和를 維持케 함으로써 美国의 直接介入을 必要로 하는 局地的 紛爭을 可及的 豫防하고 過多한 軍備를 削減하려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1) 世界秩序의 改革

「키신저」가 그의 外交著書를 通하여 가장 一貫性 있게

主張한 것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世界秩序의 構造的 改革이란 것이다. 「키신저」가 「닉슨」行政府와 合流한 後에도 그는 世界의 安定과 美國의 國家利益을 爲하여서는 그 當時의 兩極體制를 多極化制度로, 同盟體制에 있어서는 壓到的 優勢에서 「파트너」의 位置로 바꾸는 內容의 制度改革論을 主張하여 왔다. 「키신저」가 이러한 主張을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몇가지 重要한 理論的 根拠를 提示하고 있다. 첫째로 「키신저」는 核武器의 登場으로 말미암아 國際政治上的 힘의 概念 (Concept of power) 이 變質되었다는 點을 들고 있다. 即 Thermo-Nuclear Weapon의 可恐的 破壞力과 美·蘇間의 膠着狀態로 말미암아 所謂 強大國의 行動의 自由가 過去에 比하여 極히 制限되어 軍事的 힘=政治的 影響力이라는 在來의 等式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軍事的 힘이 政治的 影響力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며 이는 特定問題를 싸고 있는 与件 및 政策遂行者의 能力에 따라 決定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테탄트 (detente) 와 戰爭豫防 (deterrence) 의 概念의 抬頭를 들고 있다. " 即 現國際政治에서는 軍事的 힘이란 「테탄트」와 「디터런스」를 支援하는 役割을 하고 있으며 外交에서는 「테탄트」와 「디터런스」의 概念이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外交의 質的 變化와 戰時 歐羅巴와 日本의 再起와 中共의 出現은 2次大戰後 世界政治를 支配해 온 兩極體制의 修正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키신저」는 意識的으로 이러한 5強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國際秩序를 安定된 새로운 國際制度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으로는 비록 多極化時代가 到來하였다고는 하나 軍事的으로는 아직까지도 兩極體制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政治的 多極體制와 軍事的 再起體制의 Gap에서 오는 緊張(tension)을 解消하여야 한다는 점을 「키신저」는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緊張感의 解消는 美·蘇의 힘의 自制와 美國의 對同盟國政策을 變更하며 名實相符한 Partner의 地位를 日本과 歐羅巴에 賦與하고 特히 歐羅巴에 對하여 政治的 發言增大와 NATO의 指揮權의 보다 많은 讓渡로서 可能하다는 것이 「키신저」의 持論이다. 世界秩序의 構造的 改革과 關聯하여 「키신저」는 또한 弱小國과 第三勢力이라고 할 수 있는 非同盟國家들의 地位에 關하여 言及하고 있다. 「키신저」는 그의 特有의 抽象的이고 애매한 表現으로서 이러한 非同盟弱小國들이 보다 큰 役割과 發言權이 賦與되어야 한다고만 말할 뿐 아직은 分明히 어떠한 役割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나. BLOC間的 平衡 (Equilibrium) 企圖

「키신저」는 過去 Balance of Power System을 오늘날의 國際政治에 다시 復活시키려는 傾向이, 「블럭」間的 均衡을 維持하려는 그의 政策에서 나타나고 있다. 即 美國은 日本과 歐羅巴에 보다 큰 權限과 影響力을 認定 乃至 助長시킴으로서 世界政治問題에 보다 큰 關心과 役割을 担当케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美國의 負擔을 줄이고 美國이 過去 말았던 役割과 責任을 自然

스려운 方法으로 歐羅巴와 日本에 移管시키려는 動機에서 의루어진 것 같다. 또 하나의 重要한 戰略은 이러한 勢力들로 하여금 相互 均衡을 이루게 하고 牽制계 합으로서 美國의 物質的 軍事的 힘을 消耗하지 않고 安定된 世界를 維持함과 同時에 美國의 安保를 期한다는 것이다. 具體적으로 歐羅巴가 歐洲에서 蘇聯 및 東歐圈을 牽制하는데 보다 큰 役割을 하도록 要求하면서 歐羅巴가 美國과 共同步調를 取해줄 것을 希望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日本에 「아시아」의 指導國으로서의 位置를 賦與하고 「아시아」自由陣營國에 對한 援助는 勿論 中共을 牽制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中共과 蘇聯과의 團합을 막고 現在의 中·蘇紛爭을 最大로 利用함으로써 蘇聯이 歐羅巴와 다른 世界地域에서 攻撃的 行動을 할 수 없도록 牽制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에는 中共의 核能力이 蘇聯에 比하여 劣勢에 놓여 있어 蘇聯으로부터 攻撃을 받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美國은 中共을 支援함으로써 中·蘇間의 緊張이 熱戰化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다. 「데탕트」의 安定

現在 和解와 協調「무드」는 아직까지는 安定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美國은 새로이 이룩된 「데탕트무드」를 좀 더 定着시키고 이를 보다 뚜렷한 體制로 發展시키기 爲하여 努力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몇가지의 前提와 條件이 이룩되어야 한다. 卽 東西間의 Detente 라는 「게임」이

실효있게 運營되기 爲하여서는 몇가지의 규칙 (Rule) 이 強大國 間에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理想的, 政治的인 敵對國임과 同時에 世界平和維持라는 重大한 課業遂行의 「파트너」의 立場에 있는 美國과 蘇聯은 어떠한 代價를 支払하더라도 人類의 滅亡을 避해야 한다는 歷史的인 責任을 切感하고 이를 履行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強大國들은 「이데올로기」보다 現實問題의 解決을 重視하고 對話와 妥協을 通해서 合理的으로 解決하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셋째로는 「이데올로기」의 兩極的 對立에 對하여 보다 부드럽고 樂觀的인 態度를 갖고 世界運命에 對한 共同哲學을 誘導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만약 共產과 自由 兩陣營이 「이데올로기」의 繼統的인 對立을 일삼고 兩體制間에는 어떠한 妥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判斷下에 계속 敵對的인 行動을 取한다면 兩陣營間의 決戰은 不可避하다는 結論이 導出될 것이고 따라서 兩體制間의 軍備競争과 葛藤은 人類가 破滅할 때 까지 繼統될 것이다.

네째로 核武器時代의 特産物인 局地戰 또는 制限戰爭을 最小限으로 豫防하고 局地戰이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制限戰爭이 核戰爭으로 「에스카레이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原則的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強大國은 所謂 "Wan doesn't pay" 에 Theory 를 實踐에

옳김으로써 國際紛爭을 非軍事的 手段 即 外交的, 政治的 協商에 依하여 解決하려는 姿勢가 確立되어야 한다. 萬若 局地戰이 빈번하여지고 또한 軍事的 紛爭이 兩陣營의 勢力均衡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면은 detente의 破壞는 勿論 核戰爭의 可能性이 增大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原則으로는 美·蘇의 어느一方도 世界的으로나 中立的 地域에서나를 莫論하고 圧倒的 優勢를 占하는 것을 避하여야 한다. 蘇聯이나 美國의 새로운 影響圈이 크게 伸張될 境遇 相對國은 自然이 危脅을 느끼고 弱勢를 挽回하려고 努力한다면 和解「무드」는 깨지고 말 것이다.

일곱째로는 現在의 解冰「무드」를 一方의 影響力擴張에 利用치 않아야 한다. 現 和解體制를 意識적으로 惡用하거나 또는 自然發生的 事件이 一方의 影響力伸長에 실사 有利한 契機를 提共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利用하여 相對方에게 참을 수 없는 打擊을 加한다면은 兩陣營間의 協調體制는 維持되기 어려울 것이다. 現在의 中東事態가 바로 이러한 狀態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蘇聯이 이번 中東事態를 어떻게 利用, 傍視 또는 問題解決에 善意的으로 協調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美·蘇가 이룩해 놓은 對話의 Channel과 和解體制의 將來가 右左될 것이다.

여덟째로는 敵對關係에 있는 強大國間의 實質分野에 있어서의 相互 利害의 共通關係가 더욱 深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相互間의 貿易增進, 技術協力, 共同投資를 必要로 하는 諸分野에서의 깊은

紐帶關係가 成立하여 敵對的 對立에서 보다는 相互 協力關係에서 더 큰 利益을 追求할 수 있다고 確信하였을때 強大國들은 그들의 冒險的이고 攻擊的인 政策을 信念으로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로는 半世紀以上 持續되고 있는 敵對感의 漸次的 解消가 必要하나 國家間의 戰爭이나 敵對關係는 當事國間의 實利的 利害關係의 衝突로 因해 惹起되는 것이 大部分이나 실사 紛爭이 惹起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外交政策의 合理性과 理性에 依하여만이 解決되어야 한다는 것이 國際關係의 理想이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亦是 人間의 感情이 國際紛爭에 미치는 영향도 全히 無視할 수가 없다.

한國家의 外交政策이란 秩序의 差異와 Manipulation의 影響이 있을 것이다. 亦是 政策決定者와 國民의 感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隨伴한 兩陣營의 對立에는 相互不信이 큰 障礙要素로 作用하고 있다는 데는 疑心の 余地가 없다. 따라서 人類의 恒久的 平和는 人類의 經濟的 條件向上과 積極的인 文化交流를 通하여 相互不信의 風潮가 敵對感을 解消시키는 데서 그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敵對關係에 있는 強大國들은 勿論 모든 國家間의 效果的 對話機構가 恒常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닉슨」·「키신저」 「팀」은 以上과 같은 狀況을 造成하여 東西 間의 和解體制를 굳히고 世界를 몇個의 強大國 影響圈으로 나누어 各 「블럭」間의 均衡을 維持함으로써 가장 經濟的인 手段으로

美国 自身の 安保를 確立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美国의 國家利益追求

美国도 하나의 國家로서 自國의 國家利益을 追求한다는 데에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美国의 國家利益이라면 細分化하여 論할 수 있겠으나 이를 集約的으로 表現한다면 亦是 美国의 安全保障, 國民의 安全, 持統的인 經濟繁榮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닉슨」-「키신저」-「팀」이 美国外交의 一次的 責任을 진두한가지 特記할 事項이 있다면 이는 美国의 國家利益의 概念을 보다 現實的인 土台위에서 再定義하고 있다는 것이다. 即 美国의 外交政策을 決定하기 爲한 美国의 國家利益을 定義함에 있어 重要的 價值基準의 變化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첫째 「키신저」國務長官은 美国의 國家利害에 對한 類型을 判斷함에 있어 所謂 侵略의 抽象的 概念을 排除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過去에는 現狀에 對한 모든 挑戰 或은 共產 또는 美国 以外의 如何한 勢力의 擴張까지도 美国의 利益 또는 安保를 威脅한다고 判斷하는 極右的 性格의 抽象的 概念을 土台로 美国의 外交政策이 決定되어 왔으나 이는 誤導된 概念으로서 이를 修正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威脅의 現實的 評價와 真正한 國家利益을 土台로 하여 美国의 海外公約을 再調整하며 美国의 世界的 또는 同盟國에 對한 義務를 規定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의

底流에는 勿論 美國의 安保와 外交政策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가장 經濟的인 基準에서 海外公約과 義務을 最少로 줄여야 한다는 國內經濟的 現實이 嚴存하고 있다.

세계로는 美國의 새로운 外交政策은 歷史的 潮流 및 國際的 現實에 立脚하여 決定되어야 하며 美國의 理想主義는 可及的 排除되어야 한다고 「키신저」는 主張하고 있다. 即 美國의 國家利益, 國家安保를 確保함에 必要한 外交戰略에서는 從來의 英美式 民主主義의 世界的 傳播라든지 美國의 社會主義 또는 價值概念에 지나친 구속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即 各國마다 그들의 固有한 傳統과 그들 特有의 價值基準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理想 또는 美國式의 思想的, 政治道德的 體制에 對한 美國의 要求는 不合理的 것으로 對外政策樹立過程에서 排除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따라서 이것은 美國은 受援國들에 對한 內政干涉을 될 수 있도록 回避하고 그들의 國內問題가 美國의 安保와 外交政策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重大한 障礙가 되지 않는 限 受援國 特히 弱少國家들에 對한 美國의 國內政治的 壓力을 加하지 말아야 한다는 原則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一言之敝해서 美國의 外交政策은 美國의 國家利益의 現實的 價值에 基礎하여 가장 經濟的이며 安全한 手段에 依存해야 한다는 것이 「닉슨」 - 「키신저」의 外交政策의 基本方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具體的 政策

上記한 바의 哲學的, 現實外交의 原則을 背景으로 美國은 새로운 具體的 政策을 樹立하고 있다. 其中 몇가지 重要한 政策에 關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同盟國間의 關係에 關한 原則

「키신저」는 美國의 外交政策에 있어 同盟國과의 再調整을 強調하고 있다. 「키신저」는 真正한 意味의 同盟國關係를 維持하기 爲해서는 몇가지의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첫째 同盟國이 되기 爲해서는 相互 共同目標가 樹立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卽 世界戰略 또는 地域問題에 있어서의 共同目標가 認定되지 않는 限 真正한 同盟國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合意된 共同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政策의 共同步調가 必要하다.

세째로 實際로 共同步調를 取할 境遇 相互 緊密한 協調를 維持할 수 있는 技術的 問題에 留意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緊密한 對話와 協調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制度的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美國의 目標를 達成하는데 非協調의 態度를 一方의 同盟國이 取할 境遇 이에 對한 反應措置가 隨伴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아랍」間의 10月戰爭에서 歐羅巴와 日本이 보여준 態度는 이러한 意味에서 美國과 「키신저」에게는 큰 失望과 憤怒를 자아내게 했음이 틀림없다. 中東戰 直後 美國

務省이 歐羅巴駐屯美軍의 減縮可能性을 示唆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美國의 制裁措置의 一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닉슨」 「닥트린」 (NIXON DOCTRINE)

「닉슨」 「닥트린」의 性格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于先 「닉슨」 「닥트린」이 成立되기까지의 背景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美國은 1945年以來 堅持하여 오던 絶對的인 軍事的 優勢를 잃고 오늘날에는 蘇聯과 거의 同等한 位置에 머물게 되었고 특히 大陸間彈道誘導彈 (ICBM) 에 있어서 美國이 1,054 基, 蘇聯이 約 1,500 基를 保有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美國이 劣勢에 놓여 있는 實情이다. 또한 美國務省의 情報에 依하면 (秘密偵察結果) 蘇聯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新種武器가 開發되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防關係者들은 美國의 戰略武器의 向上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武器의 質的, 量的 向上을 圖謀하기 爲해서는 더 많은 國防費가 必要的 反面, 美國의 現實은 이를 受諾할 수 없는 實情이기 때문에 美國防計劃에는 커다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美國의 軍事的 安保를 爲해서는 더 많은 予算이 國防費로 配定되어야 하는데 實際 美國의 財政的 現實은 이를 拒否함으로써 從來의 國防計劃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于先 美國의 國防予算上の 問題點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 美國會는 越南戰으로 膨脹되었던 美國의 國防予算의 絶對額數를 削減하고 있다. 둘째로는 美國內 經濟上的 「인플레이」는 「달러」의 購買力을 減退시키고 實質的으로 予算의 減少效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數次에 걸친 美軍의 俸給引上과 또 志願兵制에

다른 俸給額의 增加는 美國防 予算에 深刻한 壓力을 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

美國의 國內政治霧困氣 亦是 美國의 지나친 (Overextended) 海外公約을 支援하기에는 너무나 踴躍어진 것이다 . 美國의 輿論은 同盟國 또는 被援助國의 經濟的 成長과 美國의 安保에 不必要하다는 理由를 들어 從來의 海外公約을 縮小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實情이다 . 나라서 美國行政府가 一部 海外公約의 縮小 및 廢棄를 骨子로 하는 새로운 外交政策을 樹立·標榜한 것이 바로 「닉슨」 「닥트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政策은 特別히 美國의 「아시아」政策을 爲主로 發展시킨 것으로서 그 內容을 要約하면 첫째 中共을 支援함으로써 蘇聯을 牽制시키고 둘째로는 紛爭의 解決을 軍事的 手段에서 政治, 外交的 手段으로 代置하고 셋째 美國의 利害關係가 깊고 美國의 安保를 爲해 戰略上 重要한 地域이 아닌 地域 및 國家의 紛爭에는 美國은 不介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霧困氣를 造成한다는 것이다 . 例를 들면 美國의 安全이 반드시 必要하지 않는 地域은 中共과 같은 勢力에게 讓步한다든지 또는 中立地帶로 만든다든지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꼭 必要치는 않으나 比較的 重要한 地域으로서 당장 共產勢力으로부터의 威脅이 없는 地域은 日本과 같은 國家에게 그 責任을 轉嫁시키는 方法도 想定할 수 있을 것이다 .

結論적으로 말해서 「닉슨」, 「닥트린」이란 減少된 軍事費로서 現在 美國이 차지하고 있는 世界指導國으로서의 位置를 固守하고 海外公約 및 國家利益을 長期的으로 維持하기 爲한 外交政策이며 그 特徵은 同盟國의 責任과 負擔을 增加시키고 世界政治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더욱 嚴重한 外交政策이라고 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NATO와 歐羅巴政策

「키신저」는 2次大戰後 美國이 中心이 되어 結成한 軍事的 同盟體(NATO, SEATO, CENTO)中 오직 NATO만이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는 軍事的 同盟體가 本然의 機能을 發揮하기 爲해서는 몇가지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첫째, 類似한 傳統과 同盟國의 政治, 經濟, 社會構造의 類似性이 存在해야 한다.

둘째, 外部로부터의 危險에 對한 同一한 認識이 必要하다.

셋째, 一旦有事時 軍事的 努力이 効果的으로 遂行될 수 있는 體制가 實質的으로 存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共同政策을 遂行하는데 各國間의 緊密한 補助를 可能케 하는 媒介體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을 具備한 同盟體는 오직 NATO뿐이었고 다른 軍事同盟機構는 有明無矣한 빈 껍데기 뿐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NATO以外에는 効果的인 集團軍事同盟機構는 不可能할 것이라는 것이 「키신저」의 信念인듯 싶다.

그러나 이러한 NATO亦是 1965年後半 부터는 그 軍事的 機能과 政治的 意義가 漸次 弱화되기 始作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深刻한 危機를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키신저」는 指摘하면서 그 理由를 列挙하고 있다. 于先 1960年代初期까지 NATO가 成功할 수 있었던 理由를 分析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1960年代 初期까지의 歐羅巴의 經濟力은 美國의 援助 및 後援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歐羅巴諸國間의 政治的 團結이 欠如되어 美國의 政治的 支配가 可能했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歐羅巴의 自由津營國家들은 蘇聯과 東歐로 부터의 被侵에 極度로 神經이 날카로워져 있어 「유럽」의 防衛를 爲해서는 美國에 一方的으로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1960年初까지는 美國의 核能力이 蘇聯에 比하여 相當한 優勢를 占하고 있었기 때문에 美國의 「유럽」에 對한 核保護公約의 信戀度는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을 主軸으로 하는 歐羅巴防衛體制가 理論적으로나 現實적으로나 可能하였으며 美國은 「유럽」에 對하여 거의 絶對的인 影響力을 驅使함으로써 美國을 求心點으로 한 NATO가 無難히 持續되어 왔다. 그러나 1960年代 後半부터는 여러 가지 狀況이 바뀌고 NATO를 中心으로 한 諸分野에 있어서의 美國과 歐羅巴問題는 惡化一路에 있는 實情이다.

그 主要原因을 分析해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歐羅巴의 經濟的 成長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即 歐羅巴는 이제 獨自의 經濟圈을 形成하여 美國의 經濟와 國際적으로 競争할 수 있는 境地에 到達하여 더 以上 美國의 經濟에 隸屬乃至는 依存할 必要가 없어졌기 때문에 相對적으로 美國에 對한 立場이 強化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歐羅巴의 EEC를 中心으로 한 共同體의 發展이다. 歐羅巴의 政治的 統合이라는 高地까지는 아직 遼遠한 狀態에 있으나 구라파를 하나의 政治的 單位로 보고 구라파 全體의 繁榮을 期하여 團結을 誘示하고 있는 EEC中心의 구라파共同體는 獨立된 政治的 單位로서 世界政治에 參與하려는 強力한 動機가 되고 同時에 美國으로부터의 政治的 獨立을 主張하겠끔 되었다.

세계로는 蘇聯의 구라파侵略 威脅의 減少이다. 從前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구라파諸國은 아무도 蘇聯의 구라파侵略의可能性을 질게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軍事的으로 美國에 對한 依存度가 弱化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美國의 核우산에 對한 信憑度問題이다. 卽 美國의 蘇聯에 對한 核優位는 이미 喪失되었고 反對로 核武器의 破壞力增加에 따라 核戰爭이 勃發하는 境遇 犧牲者는 4,000 万부터 1 億 2,000 万에 이르게 될 것으로 推算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구라파人이 憂慮하는 바는 구라파가 核攻擊을 받을 境遇 果然 美國이 그와 같은 犧牲을 무릅쓰고 구라파에 對한 核公約을 지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 또한 구라파는 NATO의 指揮權 特別 核武器使用權限에 對한 積極的인 參與를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

「키신저」는 勿論 이러한 問題點을 認識하고 美國과 구라파와의 關係強化를 가장 重要한 外交的 「잇슈」로 간주하여 構想한 것이 바로 新大西洋憲章(New Atlantic Charter)이다. 「키신저」는 世界平和와 秩序維持課業에 對한 「유럽」의 責任이 「유럽」스스로의 哲學的 動機 없이는 不可能하고 「유럽」의 보다 큰 經濟的 負擔이 그들 스스로의 判斷과 必要에 依한 것이 아니면 不可能하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美國과 「유럽」의 關係를 過去의 빈 집질뿐인 Partner 關係 또는 追從關係에서 實質的 Partner의 地位를 갖고 美國과 對等한 立場에서 世界政治問題를 解決하는데 參與할 수 있는 地位가 賦與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이를 爲한 첫 段階로서 美國과 구라파 關係의 理論的 基礎가 될 수 있는 新大西洋憲章을 構想하게 된 것이다. 「키신저」의 個人哲學에 따르면 適當한 時期에 核武器를 包含

한 軍事的 指揮權이 구라파로 移讓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듯 하다. 허나 軍事指揮權의 完全한 移讓은 아직까지도 美國의 國內情勢로 보아 相當한 時日이 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키신저」의 「新大西洋憲章」計劃도 豫期치 못한 구라파의 反撥에 부닥치게 되었다.

첫째는 구라파와의 事前協議없이 日本을 包含시킨 것은 구라파諸國의 甚한 反撥을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로는 中東問題의 惡化와 지난 10월에 있는 「이스라엘」- 「아랍」戰爭으로 一大 試練을 겪게 되었다. 特히 「아랍」諸國의 石油武器化政策은 美國과 구라파間의 對立을 激化시키고 美國과 구라파와의 共同步調를 외치는 「키신저」外交에 一大 打撃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한 「키신저」의 앞으로의 對策은 多分히 今後 그의 外交的 能力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 軍事政策

美國의 現國防政策은 한마디로 말해서 假想敵國에 對하여 若干 優勢한 軍事力을 維持하는 한편 軍事力을 減縮하여 國防費를 節減시키자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얼핏 보아서 二律背反的인 듯한 印象을 주고 있으나 實은 極히 Delicate하고 忍耐를 要하는 現實的인 政策으로서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美國이 現在 深刻한 財政的 壓力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다. 美國의 權威있는 國防研究所인 Brookings Institute의 發表에 依하면 「인프레」로 말미암아 現在の 國防費

는 그 内容에 있어서 큰 變動이 없어도 1978 年에 가서는 1,020 億弗에 達할 것이라고 한다. 순전히 이러한 經濟的 要因만으로도 美國의 現軍事力과 國防豫算을 앞으로 再調整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에 놓여 있다. 이러한 軍事力の 再調整作業에 있어 美行政府는 蘇聯과의 軍事力 均衡原則을 세우고 있다.

첫째로 美國은 蘇聯에 比하여 지나친 劣勢도 優勢도 排擊하고 戰爭을 豫防할 수 있을 程度의 軍事力維持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美國은 世界平和의 維持와 이를 爲한 美國의 外交政策을 뒷받침 할 수 있을 程度의 軍事力을 保有한다는 것을 美軍事力 調整의 基準으로 삼고 있다.

万若 相互 均衡된 軍事力이 相互利益에 符合된다는 點에 美·蘇 兩國이 合意한다면 軍事力の 지나친 肥大는 아무런 實質的 效果를 增이 없이 서로간에 加增되는 經濟的 負擔과 어떤 意味에서는 더욱 緊張만 造成시킨다는 否定的인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論理에서 美國은 相互均衡減軍을 積極的으로 推進함으로써 軍事政策의 또하나의 目標인 國防費의 節減을 꾀하고 있다. 特히 再來式 軍備와 軍事力은 美·蘇가 大規模局地戰을 直接 遂行하려는 意思만 없다면 이의 減縮은 서로의 利益을 圖謀한다는 理論下에서 推進하여온 것이 相互均衡 減軍(MBFR)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會談에 臨하고 있는 兩側은 勿論 어떤 劇的인 結果가 短時日 內에 이루어지리라고는 期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計劃이 오랜時日과 忍耐가 必要하다는 點을 理解하고 있으며 이를 漸次的으로 擴大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BFR에 並行하여 美·蘇는 또한 戰略武器制限會談을 進行시켜 「SALT Phase I」을 이미 完了하여 ICMB의 現水準凍結과 ABM System의 基地制限에 關하여 協定을 締結한바 있다. 參考로 美國의 現在 軍事力과 海外駐屯兵力現況을 소개하기로 한다.

표 1 미국의 군사력

	1950	1968	1973
지상군사단	12 (150萬)	23 (350萬)	16 (230萬)
항공모함	15	24	16
해군함정	598	932	594
전략공군기	미상	144	103
기타공군기	22,968	24,095	18,640
국방예산	119억불 (GNP의 45%)	759억불 (9.4%)	767 (6.4%)

출처 : 미국의 외교정책 (1973) - 미국무장관 보고서

표 2

미국의 해외주둔 병력비교

	1969	1973
기 지		321
병 력	100 만명 초과	600,000 명

표 3 미군의 해외주둔 병력상황

해외기지-약 2,000 개 (통신기지 포함)

주요군사기지-330 기지 주둔국-20 여개국

병 력-606,000 509,000 -육군 및 공군

97,000 -해상군무

미군의 해외주둔 병력상황

국 가	주 둔 병 력
한 국	42,000
뉴 쿠	40,000
태 국	38,500
일 본	18,000
필 리핀	15,000
대 만	9,000
소 계	162,500
독 일	228,000
이 태 리	10,000
스 웨 인	9,000
파 나 마	10,000
영 국	21,000
터어키, 그리스, 벨지움, 베넬란드 그린란드, 아이스란드 등	159,000
총 계	599,500

第2部 東「아시아」 및 太平洋政策

第二部 東亞細亞 및 太平洋政策

1. 美國의 政策目標 (Policy Goals)

前章에서 紹介한 美國의 世界戰略속에서 美國은 東亞細亞政策을 構想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美國은 太平洋地域에서의 美國의 깊은 利害關係를 認識하고 強力한 太平洋指導國家로서의 存續을 希望하고 또 그러기 爲하여 努力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過去의 韓國戰 또 最近에는 越南戰으로 甚한 出血을 낸 쓰라린 經驗을 通하여 다시는 그러한 大出血의 局地戰을 忌避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東亞細亞政策은 自然 過去와는 달리 더욱 複雜한 樣相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美國은 그들의 東亞細亞同盟諸國에 對한 海外公約을 質的 量的 側面에서 修正을 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卽 相對國家의 戰略的 重要性和 美國과의 利害關係의 深度에 따라 美國은 東亞細亞에서의 優先順位를 定하고 이에 따라 美國의 公約의 內容을 決定하고 있는 듯한 印象을 強力히 示唆하고 있다.

美國은 大略 東亞細亞國家들을 4個의 範疇로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첫째, 範疇에 屬하는 國家는 美國이 自國의 安保와 亞細亞에서의 美國의 自由에 直接的으로 깊은 關係가 있다고 判斷되는 國家로서 이들 國家에는 美國의 強力한 軍事的 前進基地를 設置하고 兵力을

駐屯시키는 國家들이다. 이러한 範疇에 屬하는 國家로서는 日本, 韓國, 태국,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의 範疇에 屬하는 國家는 美國의 友邦이며 重要한 地域으로 간주하고 軍事的 保護를 提供한다. 軍事的 余力이 없을 境遇 後退 또는 協商의 對象이 될 수 있는 國家이다. 이러한 國家로서는 越南, 「크메르」, 「싱가폴」, 「인도네시아」, 台灣等地가 될 것이다.

세째로는 軍事的 方法보다는 政治的, 外交的 手段에 依하여 中立 地帶로 設定하거나 또는 現在의 中立的 狀態를 維持하고자 하는 國家들이다. 이러한 國家로서는 「라오스」 「버마」 「말레지어」 印度 등을 들 수 있다.

네째로는 共產協力 特히 中共의 勢力圈으로 認定하여 既存 共產 勢力을 認定하거나 또는 앞으로 讓步까지 할 수 있는 國家이다. 現在의 狀況을 基準으로 判斷한다면 「파키스탄」 「베그라메쉬」 程度이다. 앞으로 發展되는 狀況에 따라서는 第二, 三範疇에 屬하고 있는 國家로서 印度, 「라오스」, 「크메르」, 台灣까지도 共產圈에 讓步할 可能性이 있다고 一旦은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世界戰略의 基本中の 하나가 世界를 몇개의 勢力圈으로 나누어 均衡을 維持함으로써 世界平和를 維持하려는 것이 라면 美國의 勢力圈이 가장 큰 것이었으므로 美國은 過去의 自國의 勢力圈中 一部를 다른 勢力圈에 讓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讓步하지 않는 限 他勢力이 이를 坐視하지 않을 것임은 勿論 美國이 願하는 勢力均衡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勿論 「아시아」에서는 共產圈(中·소)뿐만 아니라 日本의 勢力도 包含하여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世界 Power 中心의 具體적인 「아시아」分配樣相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事態의 進展에 따라 相當히 流動적인 것이 될 것이다. 最小限 美國이 이러한 「아시아」分割原則을 政策目標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確實視되고 있다.

單的으로 表現해서 美國은 「아시아」에서의 平和를 定着시키고 同時에 美國이 強力한 太平洋國家中の 하나로서 存續하기 爲한 最善의 經濟的 方法으로 中共을 包含한 「아시아」의 現實問題를 認定하고 이를 政治的, 外交的 手段으로서 解決한다는 것이다.

2. 軍事政策

美國의 東亞細亞地域에서의 軍事政策은 몇가지 基本戰略에 依하여 決定되고 있다.

첫째, 美國은 「아시아」에서의 指導國家로 存續하는데 必要한 最少限의 軍事力을 가장 重要한 戰略的 要衝地域 또는 國家에 駐屯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아시아」友邦國家의 自衛能力을 培養하고 美軍의 役割은 一次的으로 核掩護와 海空軍 支援役割에 極限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美國의 現 對韓軍事政策에도 잘 反映되고 있다.

세째로는 美軍의 「아시아」 特히 極東에서의 軍事力은 中·소

紛争에서의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하여 特히 火力面에서 中·소의 兵力의 Balance 役割을 할 수 있는 軍事力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軍의 局地戰에의 直接介入을 可能한 限 避하는 한편 局地戰의 予防(Deterrence)에 力點을 두고 있다. 또한 同盟國과의 關係는 主로 双務的 體制를 中心으로 運營할 것이며 大規模軍事同盟機構는 構想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判斷된다.

우리에게 가장 關心이 깊은 「아시아」駐屯兵力의 增減問題에 關하여 考察하여 보면 同地域의 兵力의 增減은 原則적으로 可能하나 이는 「아시아」의 平和定着化 過程과 關聯하여 앞으로 進展되는 狀況에 따라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아시아」駐屯兵力의 增減을 決定하는데는 「아시아」를 防衛하는데 얼마만큼의 軍事力이 必要한가, 特히 火力의 威力과 C-5 등의 高度의 機動性等이 判斷의 基準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諸判斷要素를 고려한 作戰計劃에 따라 同地域의 駐屯兵力의 增減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中共政策

現在 美國의 東「아시아」政策中 對日政策과 더불어 對中共政策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비단 東「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戰略的 次元에서도 共產圈에 對處해 나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狀態는 共產陣營의 兩大勢力

인 中共과 蘇聯間의 不和·反目과 敵對關係의 持續일 것이며 逆으로 中·소가 團結하여 美國을 相對로 한다면 美國은 現在의 国力으로서 큰 困難을 받게 될 것임은 分명한 事實이다.

따라서 美國은 軍事的으로 肥大해진 蘇聯을 世界的 次元에서 牽制하고 구과에서의 壓力을 輕減시키기 爲해서는 現在의 中·蘇對立을 助長할 必要가 있다. 또한 「키신저」가 바라는 世界的 強大國間의 勢力均衡과 Balance of power system을 運營하기 爲해서는 中共이 強大國으로 登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現在의 中共의 核能力은 아직 自衛能力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蘇聯의 核先制攻撃을 받을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美國은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核戰爭을 預防하고 中共이 存續하게끔 하기 爲하여 中共을 支援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中共과 關係改善을 하고 中共을 支援함으로써 美國이 얻을 수 있는 또하나의 政治的 利益은, 美國이 蘇聯과의 協商에서 얻는 高地確保인 것이다.

勿論 中共의 將來 市場性과 같은 經濟的 要因도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 將來의 問題이고 一次的으로는 美國의 世界戰略의 一環으로 蘇聯을 牽制하고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의 恒久的 追求라는 目的을 爲하여 中共을 世界的 責任있는 強大國으로 끌어내어 「키신저」가 構想하고 있는 World major 를 中心으로 한 世界均衡體制의 運營을 爲한 것이라고 一旦은 풀이해야 할 것이다.

勿論 美中和解와 새로운 協力關係가 美國의 一方的인 희망이나 政策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美中の 和解 및 接近(Approach-

hment) 이 可能하기 爲해서는 中共과 美國의 어떤 目的을 爲한 利害關係의 共通點을 發見하였기 때문인 것은 自명한 事實이다.

中共은 政治制度面에서 蘇聯과 같은 共產體制를 갖추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反目·對立할 수밖에 없는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卽 強大國으로 隣接國家라는 點. 平和的 解決이 거의 不可能한 領土問題, 文化的 差異 및 共產圈內의 霸權問題等이다. 이러한 問題點이 現實化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中·蘇紛爭이며 蘇聯과의 紛爭에서 核武器分野에서 劣勢에 處해있는 中共이 美國과 接近함으로써 蘇聯의 核先制 攻撃을 予防하려는 意圖에서 中共은 美國과의 接近을 企圖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美·中共은 相當期間 寒質的인 協調關係를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美·中關係에서 가장 큰 宿題는 台灣問題라고 할 것이다. Shanghai Communique 에서 밝힌 美·中共의 合意點은 極히 原則的이고 流動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卽 1個의 中國, 中國問題의 中國人에 依한 摸索, 美·中防衛條約의 繼續的인 効力認定, 駐台灣美軍의 緊張解消에 따른 漸次的 縮小等은 實質的으로 台灣問題의 어떠한 本質的 解決도 暗示해 주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台灣問題는 앞으로 美·中共關係의 繼續的 改善與否와 中共政權에 對한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의 信賴度에 따라 그 運命이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美·中共의 國交가 이루어지고 台灣과의 公式 外交關係가 斷絶되더라도 某種의 便法에 의하여 相當한 期間동안은 現在와 같은 位置가 存續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日本政策

對日本政策은 1945年以後 美國의 東「아시아」政策의 基本은 San Francisco 平和條約時의 美側態度에서 이미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은 再起한 民主日本이 「아시아」의 反共指導國으로서 美國의 Backyard 인 太平洋의 防衛와 東南「아시아」의 自由陣營國家들을 領導하여 美國의 「아시아」防衛努力의 一翼을 担当해 주기를 希望해 왔다. 이러한 構想 밑에 美國은 經濟的으로도 日本으로 하여금 美國의 對「아시아」援助의 負擔을 分擔하기를 希望하며 復興된 日本에 꾸준한 壓力을 加해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日本은 干先 美國의 立場으로 볼 때 가장 重要한 戰略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太平洋國家일 뿐만 아니라 가장 強力한 「아시아」의 指導國으로 看做되고 있다. 그러한 日本이 万一 美國의 非友好國家로 轉向한다면 이는 美國의 安保와 「아시아」에서의 活動

에 重大한 威脅을 形成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美國은 日本이 美國의 가장 重要하고 가까운 盟邦으로 남을 수 있고 나아가 日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모든 与件을 造成하는데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을 中心으로 「아시아」國家들이 團結하여 共產勢力의 擴大를 막고 美國의 軍事的, 經濟的, 政治的 負擔을 輕減하고 「아시아」平和의 礎石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美國의 對日本 및 「아시아」政策의 基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구라과에서의 美國이 試練을 겪은 바와 같이 1960年代末부터는 日本과의 關係도 急激한 變化를 가져왔고 相當한 Tension이 存在하게 되어 1972年 1月 「닉슨·사또」會談에 이어 2次에 걸친 「닉슨·다나카」頂上會談의 開催가 必要할 程度로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實情이다. 勿論 이러한 現象이 美·日關係의 斥別과 같은 極端的인 事態를 予告하는 前奏曲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經濟的, 政治的 大國으로 成長한 日本이 過去25年間 日本의 後見人的 役割을 해온 美國과의 利害關係의 衝突로서 惹起된 現象이며 이와 같은 利害關係의 對立은 차라리 兩國間의 基本的 地位의 再定立이 이루어지기 前에 日本의 急速한 成長이 가져온 磨擦現象이라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따라서 NIXON - Kissinger team의 對日本政策은 過去 美國의 一方的 영향力行使를 止揚하고 日本에게 名實相符한,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Partner로서의 權限과 責任을 賦與하려는데 두고 있다.

美国은 「아시아」問題, 나아가서는 世界問題의 解決에 있어 日本을 美国의 強力한 Partner로 부각시키려고 努力하고있다. 「키신저」가 「新大西洋憲章」에 日本을 包含시킨 것이 이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美国은 「아시아」에서의 美国의 國防費와 經濟援助에서 오는 負擔을 같이 하여 줄것을 要求하고 있다. 中共의 日本의 軍國主義復活에 對한 警戒心과 美国 自身の 對日本警戒心 때문에 美国은, 日本의 急激하고도 大規模的인 再武裝을 希望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日本의 巨大한 GNP의 1%도 못되는 國防予算과 「아시아」自由國家들에 對한 消極的인 經濟援助는 是正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美国의 主張이다. 또하나의 美国의 要求는 美·日間의 貿易逆調에 對한 是正이다. 美国은 1972年 1年동안 日本과의 貿易에서 42億弗이라는 莫大한 赤字를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越南戰에서의 戰費過多支出로 허덕이는 美国財政과 弱화된 「달러」에 加重된 負擔을 招來케 하였다. 이로 因해 美国은 이의 是正策으로 日本에게 「엔」의 評價切上을 하도록 壓力을 加하며 其他 經濟的 措置를 取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는 政治的 緊急措置에 不過함으로 純粹한 經濟的 次元에서의 健全한 經濟關係가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5. 問題点

美國의 새로운 東「아시아」政策과 「아시아」平和의 制度化作業에는 아직 많은 問題点들이 存在하고 있으며 美國에 다음과 같은 試練을 안겨주며 挑戰을 하고 있다.

첫째, 越南戰이 成立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도 越南全域 到處에서 軍事的 衝突이 惹起되고 있어 越南에서의 平和의 定着化問題는 勿論 休戰協定 自体를 威脅하고 있으며 이러한 政治的, 軍事的 問題以外에도 難題가 많으나 그중에서 越南經濟再建問題는 커다란 宿題로 남아 있다.

둘째, 越南以外에도 「말레이어」, 泰國, 「인도네시아」等地에서 共產勢力으로부터 支援을 받고 있는 共產「게릴라」의 蠢동은 東南「아시아」의 平和를 恒常 威脅하고 있다.

셋째, 中共과의 接觸擴大 및 政治的 協力問題는 아직까지는 極히 流動的임으로 對中共關係의 制度化問題는 美國의 東「아시아」政策의 重要한 課題로 남아있어 그 귀추가 注目되고 있다.

넷째, 「아시아」에서 美國의 가장 重要한 同盟國인 日本과의 關係再定立問題는 앞으로도 相當한 陣痛을 겪게 될 것으로 予見된다.

다섯째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化問題와 關聯하여 北韓의 挑發可能性에 對한 抑制, 南北對話에 對한 支援問題等은 美國의 또하나의 課題로 相當期間 남게될 것이다.

여섯째, 中蘇紛爭 및 日本의 對中共, 對蘇接近의 움직임은 「아시

아」의 勢力版圖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것임으로 美國이 이들의 關係를 어떠한 方向으로 誘導하는가 하는 問題는 美國의 政策樹立 家들에게 深刻한 苦惱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全域에 걸친 貧困, 人口過剩, 經濟的 後進性, 不正腐敗 및 反政府陰謀等은 恒常 커다란 問題거리로 登場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새로운 東「아시아」政策의 成敗는 이러한 諸問題를 어떻게 技術的으로 處理하느냐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第 3 部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第三部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1. 韓國에서의 美國의 利害關係

美國은 2次大戰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과 깊은 利害關係를 맺고 가장 가까운 盟邦으로서의 友好關係를 維持해 왔다. 이러한 密接한 關係는 美國이 韓半島를 戰略的 次元에서 重要하다고 認定치 않았다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美國이 韓半島에서 갖는 利害關係를 分析하여 보면 象徵的 重要性, 實質的 重要性, 否定的 重要性의 3가지로 分類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象徵的 重要性에 關하여 論해본다면 美國은 韓國政府樹立의 後見的 役割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 動亂時에는 「유엔」軍의 主力部隊로서 參戰하여 韓國의 存立을 可能케하여 주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安保를 責任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盟邦으로서 關係를 계속 維持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의 눈부신 經濟成長과 比較的 安定된 政治는 戰後 美國海外援助의 Show Case로서 認定되고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 따라서 今後 韓國의 持續的인 發展과 繁榮은 美國의 큰 關心事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實質的 利害關係의 面에서 본다면 韓國의 戰略的 位置는 日本을 牽制하고 駐韓美軍의 存在는 中·蘇紛爭에서 中共의 對蘇 軍事的 Balance를 이루게 하는 役割을 하고 있으므로 韓國은 軍事的으로 特別 重要的 地政學的인 價值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日本과 東南亞市場을 考慮할 때 이들 地域에 接近해 있는 韓國의 立地的 條件은 美國의 重要한 經濟的 前進基地의 役割을 할 수 있으므로 美國의 産業進出의 要地로 看做되고 있다. 最近 美國內의 大企業들의 韓國進出은 이러한 見解를 뒷받침해주는 山 証拋라 할 수 있다.

셋째, 否定的 側面으로서 韓半島가 赤化될 境遇 極東에서의 勢力均衡에 큰 蹉跌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勿論 日本의 安保는 直接的인 危脅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美國의 太平洋防衛, 海上活動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게 될 것임이 分明하다.

2. 外交政策

이렇듯 깊은 利害關係를 韓國에 갖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美國은 앞으로도 韓國의 安保의 緊要性을 認定함은 勿論 多角的인 紐帶關係를 持續할 것임이 分明하다. 外交的으로도 當分間은 從前과 같이 國際的으로 韓國의 外交代弁者의 役割을 계속할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는 한편 美國政府는 韓國에 대하여 美國의 外交路線에 共同步調를 取해주도록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Detente의 國際的 추세에 부응하여 對共產圈政策, 對北韓政策 및 對日本政策 分野에 있어서 美國의 路線을 支持하고 따라줄것을 強力히 要求할 것으로 評價된다. 即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과의 關係改善을 勸奨하고 보다 柔軟性있는 對北韓政策을 追求하며 北韓과의 對話를 通한

緊張緩和, 특히 平和條約締結과 같은 根本的인 政策轉換은 希望할 것으로 보인다. 韓·日關係에 對해서는 美國은 보다 Delicate 한 政策을 追求하게 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國은 韓國이 日本과 緊密한 協調關係를 持續하기를 바라나 그렇다 해서 親日一辺倒나 美國보다 日本에 더 依存하는 事態의 惹起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必要하다면 美國과 共同步調를 取하여 日本에 어떤 壓力을 加할 수도 있는 美國政策의 Framework 內에서의 親日關係를 內心 바라고 있는 것이 美國이 願하는 對韓國政策路線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經濟政策

美國의 對韓經濟政策은 한마디로 말해서 韓國이 過去보다 더욱 自立된 經濟體制를 갖추고 美國經濟에 貢獻할 수 있는 經濟構造를 希望하는 것일 것이다. 消極的으로는 增加된 軍援移管을 通해서 韓國側으로 하여금 더 많은 國防費를 負擔케 함으로써 美國의 財政的 負擔을 輕減시키고 積極的으로는 貿易收支均衡을 要求하고 日本과 比較하여 더욱 有利한 投資條件과 環境을 바라고 있다. 나아가서는 韓國에 經濟前進基地를 設置함으로써 韓國의 底廉하고 水準이 높은 勞動力과 有利한 立地條件(日本, 東南亞 및 中共과 距離가 가까움)으로 韓國에서 生産되는 美國製品의 經濟力이 強化될 수 있음)을 利用하려는 傾向이 漸次 부각되고 있다.

4. 駐韓美軍減縮問題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韓半島에서의 利害關係가 恒久的인 것이라면 美國이 對策없이 韓半島를 拋棄한다던지 힘의 空白狀態를 造成하여 韓半島의 赤化를 助長하는 事態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韓國防衛에 必要한 措置에 對한 異見이나 또 韓國軍의 防衛力을 감안한 北韓의 軍事力 및 威脅의 程度에 對한 評價面에서의 意見差異는 理論的으로나 實際에 있어 可能하다.

美國防省政策關係者들은 첫째 駐韓美軍의 規模를 地上軍의 數보다는 火力面에서 判斷하려는 傾向이 있다.

둘째로는, 美國이 豫算切減에 더욱 큰 關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韓國政府는 美國側과 干先 南北韓의 戰力比較評價에서 意見의 合致를 보아야 할 것이며 北韓의 挑發을 豫防할 수 있는 充分한 美軍의 海空軍支援能力과 火力을 確保하는에 그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蘇聯 및 中共의 北韓挑發助長 可能性

가. 蘇聯의 北韓挑發助長可能性

最近 國內의 一部에서는 蘇聯이 北韓의 挑發을 助長할 可能性이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卽 美國과 中共의 接近을 妨害하기 爲하여 蘇聯이 다시 韓半島에서 戰爭을 誘發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主張은 理論的으로는 可能하다고 볼 수 있으나 現實的으로 蘇聯은 現在 美國과 戰略武器制限會談을 비롯하여 經濟技術協力の 必要性, 農産物의 對外依存度의 必要性의 認定等 여러가지 理由로 해서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摸索하고 있으며 現在의 Detente Mood를 보다 恒久的이고 制度的 構造로 發展시키기 爲하여 努力하고 있다는 點等を 감안할 때 이러한 可能性은 特히 稀薄한 것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기 戰略的 要衝地帶에서의 局地戰은 오늘날까지 大部分 큰 實質的 利益이 없이 消耗戰에 끝났다는 事實, 그리고 韓國戰의 再發은 美軍의 介入을 必然的인 것으로 만들며 오히려 美國內의 極右勢力의 強硬路線의 妥當性을 現實的으로 證明해주는 結果를 가져오며 美國의 大規模武裝強化를 招來케 할 可能性이 커진다는 事實을 蘇聯으로서도 能히 豫測할 수 있는 바임으로 蘇聯이 여태까지 追求해온 Dentente mood만을 과파하는 無謀한 戰爭을 韓半島에서 誘導할 可能性은 現實的으로 特히 희박하다고 判斷되 어진다.

나. 中共의 北韓挑發助長可能性

中共은 現在 中·蘇紛爭에서 重要한 戰略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北韓을 自己편에 이끌기 爲해 外交的으로 그들의 立場을 代 弁하고 있으나 北韓을 使曠하여 戰爭을 再發시킨다는 것은 中共의 世界戰略的 側面에서나 對美關係改善의 側面에서나 現時點에서는 考慮 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될 수가 있다. 特히 韓半島와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의 存在는 中·蘇國境地帶에서 對峙하고 있는 兩側

軍事力을 牽制하는데 重要한 安全핀의 役割을 하고 있고 美國이 蘇聯의 對中共核政策을 制禦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있는 中共으로서 北韓의 戰爭挑發을 助長한다는 것은 아무런 實利가 없는 重大한 冒險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中共은 現在 美軍의 繼續적인 「아시아」駐屯 特히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駐屯을 希望하며 東北「아시아」의 平和의 定着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이 北韓의 南侵을 容許한다는 것은 現在의 國際的 与件이 劇적으로 變化하지 않는 限 生覺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도 큰 蹉跌이 없을 것이다.

6. 北韓의 单独開戰可能性

北韓의 金日成政權은 共產國家들中에서도 가장 教條主義的, 戰鬪的, 「팻쇼」政權으로서 韓國에 對한 敵對意識과 赤化統一課業이 政權維持의 求心的 役割을 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政權은 韓國의 武力赤화와 韓國內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通한 韓國赤화를 交替 또는 並合해서 推進해 오고 있다. 南北對話가 始作된 外來 北韓은 政治心理的 側面에서 韓國內의 革命的 雰圍氣의 造成을 期待하였으나 結果적으로 韓國의 維新體制強化와 國民의 徹底한 反共意識의 高취로 이렇다할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더우기 國內与件의 急激한 變化로 中·蘇를 包含한 強大國들이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支援하는 傾向이 露骨化됨

에 따라 北韓側은 當然히 焦燥한 氣色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北韓은 1973年 「아랍」-「이스라엘」간의 10月戰爭과 같은 事例에 刺戟을 받아 制限攻擊을 敢行하려는 誘惑에 빠지게 될 境遇를 想定해 볼 수가 있다. 即 臨津江以南 漢水以北 또는 水原, 烏山까지를 制限目標로 設定하고 電擊作戰을 敢行, 同地域을 占領한 後 中·蘇를 通해 現狀凍結의 休戰을 提起할 可能性이 그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韓國의 全經濟力의 80%以上을 차지하고 人口의 3分之1을 占하고 있는 漢水以北을 占領하여 韓國이 國家로서 存立할 수 있는 可能性을 빼앗아 버리려는 戰略戰術을 세우고 이를 實踐에 옮기려고 하는 可能性을 全적으로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目標를 占領하기 爲한 速戰速決主義의 挑發이 現實적으로 可能하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必要充分條件이 先行되어야 한다.

첫째, 北韓이 韓國을 侵攻하였을 境遇 美國의 積極적이고 即核的인 介入이 없을 것이라는 判斷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万若 美國의 海空軍 및 駐韓美軍(現在의 水準)의 積極的 介入을 覺悟하고도 戰爭을 誘發할 境遇 北韓은 그들의 火力 및 海空軍力이 韓國軍, 駐韓美軍 및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의 全体 戰鬪能力을 凌駕한다는 自身이 서야하며 同時에 北韓이 企圖한 部分的 目標를 占領하고 休戰을 提議하였을 境遇 美國과 韓國側이 이를 受諾한다는 確信이 또한 서지 않는 限 不可能하다. 그러나 實際 이러한 두가지 條件이 可能하다고는 北韓 自身도 生覺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美國이 評價하고 있는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는 美國防省의 「리스트」에 거의 Top에 가까운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韓國에 對한 危脅은 곧 日本의 安保에 對한 重大한 危脅이라는 美·日의 반복적인 政策闡明(Nixon-Sato 聲明과 Nixon-Tanaka 聲明)은 美國의 自動的 介入을 強力히 暗示하고 있다.

셋째, 萬一에 韓國戰에 美軍이 介入하지 않고 韓國이 赤化되는 것을 許容한다면 韓國이 美軍의 駐屯國이라는 意味에서 美國의 海外公約의 信憑度를 크게 損傷시키는 結果가 招來될 것이다. 即 「유럽」과 같은 重要한 同盟國들이 美國의 海外公約과 当地의 美軍駐屯에 對하여 크게 疑心하게 될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아 美軍이 完全撤收를 하지 않고 韓國에 계속 駐屯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美國이 韓國을 防禦하겠다는 決意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기 때문에 韓國에서 戰爭이 발발되면 最小限 現水準의 美地上軍과 火力 海空軍의 積極支援은 거의 自動的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7. 韓國政府의 戰爭豫防措置(對備策)

現代 國際政治의 主眼點은 戰爭발발後의 問題處理보다는 戰爭豫防措置(Deterrence)에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서의 戰爭挑発을 防止하기 爲한 韓·美兩國의 戰爭豫防措置의 講究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가. 韓國側의 措置

韓國側으로서 敢行할 수 있는 豫防措置로서는 무엇보다도 強力한 軍事力의 維持일 것이다. 勿論 韓國軍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強力한 精銳部隊로 構成된 地上軍과 突戰에 對備한 首都圈 및 休戰線防衛에 對한 確固한 決意과 勇의 주도한 防禦計劃은 絶對적으로 要望되는 措置일 것이다.

둘째로는 國內政治의 安定을 期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敢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防止하는 것이겠다.

셋째로는 美國의 資本을 最大로 誘致하여 美國의 對韓公約의 深化를 圖謀한다.

넷째로는 誘導彈等 戰略武器를 生産할 수 있는 重工業을 育成하고 戰略物資를 最大限 備蓄시킨다.

다섯째 北韓의 軍事力 및 對南戰略에 對한 의심 통과의 意見合意를 圖謀하여 美側의 誤算을 防止한다.

마지막으로 韓·美合同軍事 訓練을 週期的으로 實施하여 韓·美의 防衛能力을 北韓에 誇示함으로써 北韓의 誤算을 事前에 防止한다.

나. 美側의 措置

現在 北韓의 戰爭再發을 抑制하는데 決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은 美國의 韓國防禦에 對한 決意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韓半島에서의 戰爭의 再發與否는 亦是 美國의 態度와 政策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므로 美國은 干先 中·蘇와 北韓에 對하여 韓國防禦에 對한

美國의 確固不動한 決意를 公式, 非公式 또는 直接, 間接的인 方法을 通하여 週期的으로 傳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萬若 戰爭이 일어나는 境遇에는 美國이 積極的으로 軍事 介入을 할뿐만 아니라 核武器等을 包含한 大量報復을 加하겠다는 美國의 政策을 金日成으로 하여금 믿지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方法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韓國軍의 軍事力이 北韓에 比하여 完全한 優勢를 차지할 때까지는 北韓의 挑發을 豫防할 수 있을 程度의 適定線의 美軍事力을 계속 韓國에 駐屯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駐韓美軍이 核武器를 保有하고 이에 對한 情報를 北韓側이 眞實로 믿을 수 있도록 이를 누설, 전달케 하는 方法이다. 美側이 이러한 措置를 取한다면 北韓의 誤算에 依한 戰爭挑發을 充分히 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前述한 모든 方案이 實現되어야만 北韓의 戰爭挑發을 抑制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措置가 모두 이루어 진다면 完壁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라 確信할 수가 있다.

結 論

「키신저」를 中心으로 한 美國의 새로운 世界戰略과 그 Frame-Work 內에서의 東「아시아」 및 韓半島政策을 重點的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키신저」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現實主義에 立脚한 脫「이데오로기」의이며 革命的인 外交路線을 指向하고 있다. 그의 構想이 어느程度 健全하고 弱極的으로 어떤 結果를 거둘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그의 構想에 對하여 樂觀만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韓國과 같은 小國으로서 特殊한 條件下에 놓여있는 國家는 보다 防禦的인 Contingency Planning 을 恒常 構想, 發展시키는 한편 美國과의 効果的인 Communication Channel 을 確保하여 美國의 政策에 副應하면서도 韓國의 最小限의 要求의 限界를 明確히 提示함으로써 韓國의 安保를 圖謀해야 할 출로 일는다.

